

2022 경상북도,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10.18) 보도자료 스크랩

2022.10.18.(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매일	동북아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수상작 45점 28일까지 순회 전시	
2	신문	경북연합일보	5國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3	신문	경북도민일보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엿본다	
4	신문	경북신문	道, 28일까지 동북아 5개국 청소년 포스터 수상작 전시	
5	신문	경상투데이	동북아 5개국 전통문화·자연경관 '한눈에'	
6	신문	세명일보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7	신문	경북일일신문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8	인터넷	뉴데일리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순회 전시	
9	인터넷	세계타임즈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10	인터넷	경북인터넷뉴스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11	인터넷	케이에스피뉴스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12	인터넷	뉴스포인트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13	인터넷	경남에나뉴스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14	인터넷	서울경제TV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15	인터넷	구미뉴스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16	인터넷	CBN뉴스	경상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17	인터넷	중앙뉴스라인	경상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18	통신사	NSP통신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경북매일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002면 종합

동북아5개국청소년 그림포스터
수상작 45점 28일까지 순회 전시

경북도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사무국(NEAR)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으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이응원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현진기자phj@kbmaeil.com

경북연합일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006면 종합

5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경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 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2년간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나영철 기자

경북민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002면 종합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엿본다

도청 동락관, 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작 전시

경북도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우섭 기자 kws@hldomin.com

경북신문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003면 종합

道, 28일까지 동북아 5개국
청소년 포스터 수상작 전시

경북도가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인교 기자

경상투데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003면 경북



동북아 5개국 전통문화·자연경관 '한눈에'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8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 내 전시

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 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지난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우 기자 ycyw57@naver.com

道, 28일까지 동북아 5개국
청소년 포스터 수상작 전시

경북도가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 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우섭 기자 kws@hldomin.com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8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 내 전시

경북도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

세명일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002면 지방·지역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수상작 순회전… 28일까지 45여 점 도청 동락관 내 전시

경북도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체)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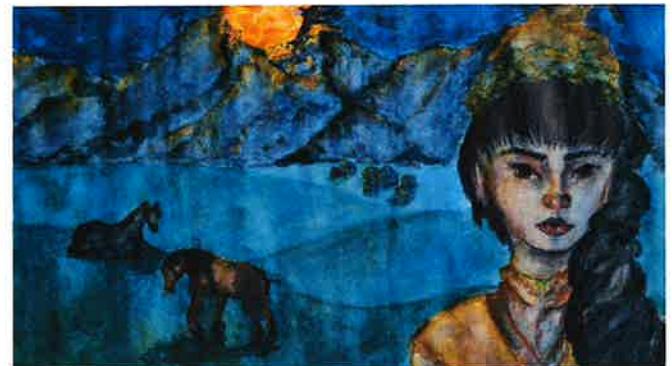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 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 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신용진 기자

경북일일신문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002면 경북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경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체)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

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용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경북도, 28일까지 45점 전시

경북도는 17일~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몽골 최우수상.



중국 최우수상.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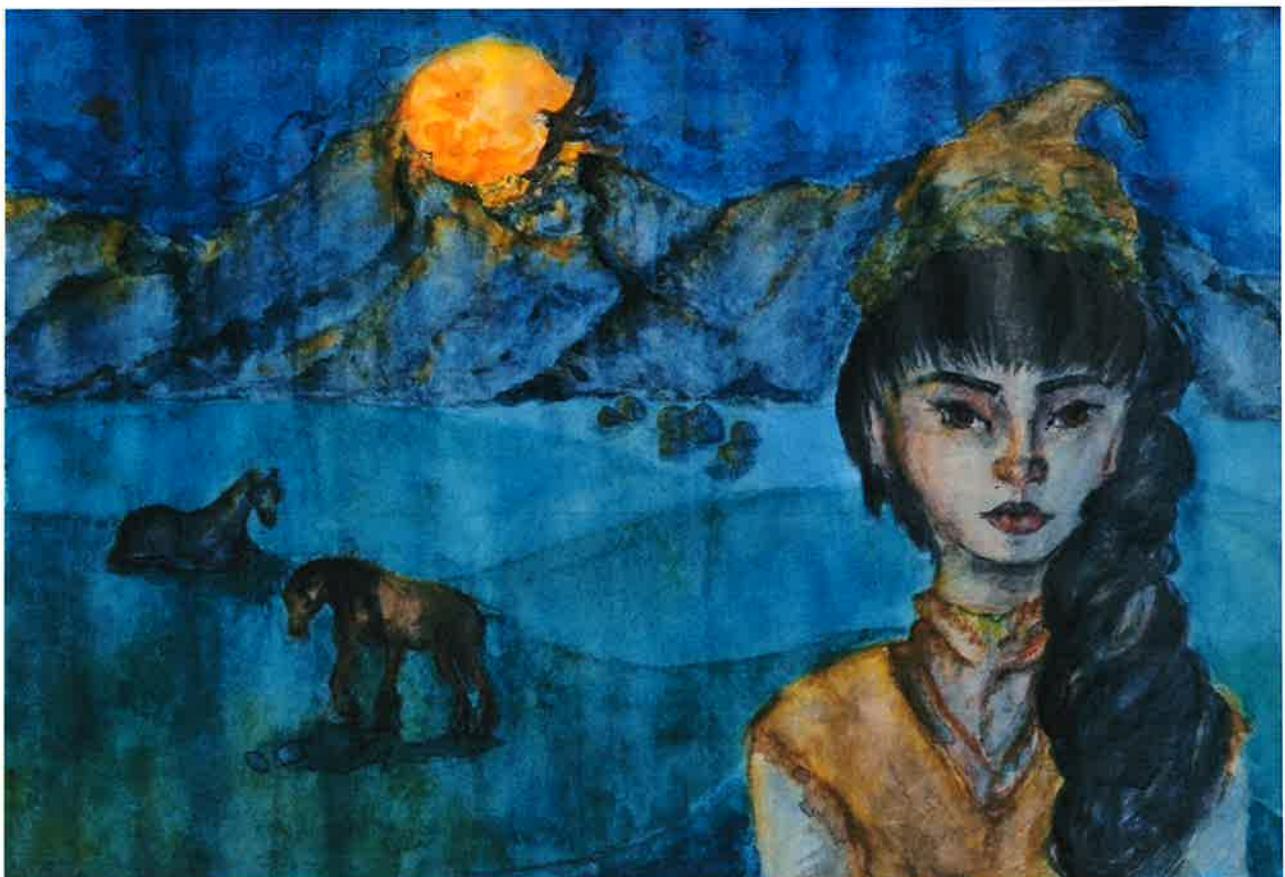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지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외교통상과장은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학진기자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순회 전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

28일까지 작품 45여 점 경북도청 동락관 내 전시

기사입력 2022-10-18 17:11:06 | 최종수정 2022-10-18 18:22:59 | 강승탁 기자 | stking12@newdailybiz.co.kr



▲ 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경북도

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용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

이 기사 주소: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2/10/18/2022101800209.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경북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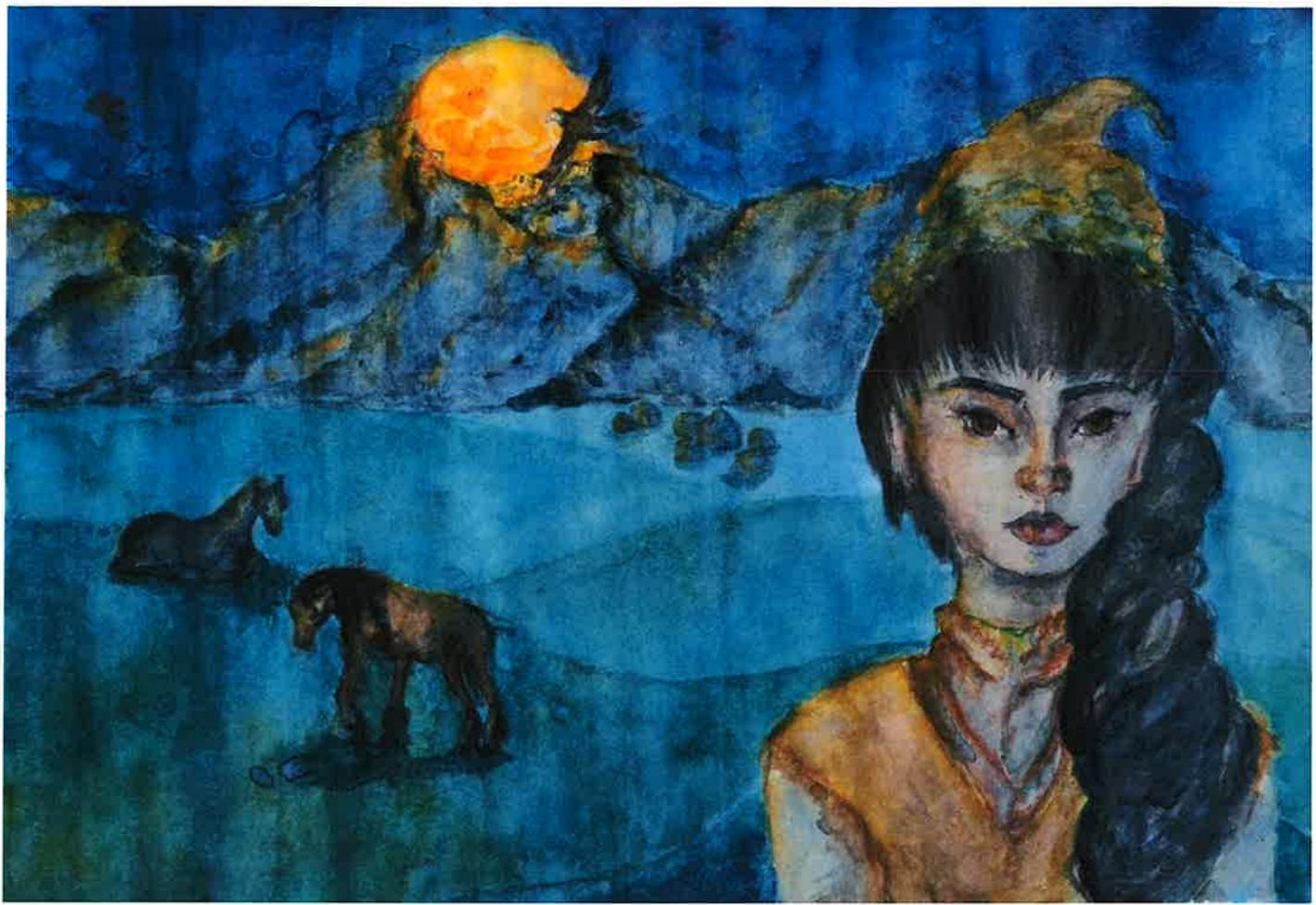
한성국 기자 / 기사작성 : 2022-10-17 14:35:54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 -
- 28일까지 작품 45여점 경북도청 동락관 내 전시 -

[세계타임즈=경북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 2021_최우수상_몽골_어딘가에서_러시아_이르쿠츠크주_슈시나_예바



▲ 2020_최우수_중국_후난성_차오즈_제마의_기품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ye.com>]



뉴스룸 오피니언 인사이드 시민참여

회사소개 독자(후원)가입 기사제보 전국네트워크

NOIMAGE
이미지가 없습니다

다시 도전! 새로운 변화! 희망의 자활



경북도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뉴스룸 > 경북도정뉴스](#)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28일까지 작품 45여점 경북도청 동락관 내 전시

기사입력 2022-10-17 14:41

복사 목록 인쇄

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재)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최우수_중국_후난성_차오즈_제마의_기품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 경북도,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 차(超隔差) 전략 발표.



▣ 이철우 지사 상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역현안 논의



▣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적지 구미



▣ 한덕수 국무총리 요양병원 코로나19 대응 점검



▣ 구미지역 성범죄자 26명 등록



세상을 바꿉니다

사건, 사고, 미담 등 기사제보해 주세요.

기사제보 054) 452-8030

온라인제보 ▶

베스트기사

[구미시정뉴스] 김장호 구미시장 첫 해외 무역사절단 ...

[구미시정뉴스]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북 선수...

[구미시정뉴스] 2022년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후...

[경북도정뉴스] K-방산의 원대한 꿈, 경북 구미에서 키...

[정치, 국회뉴스] 국민의 힘 구자근 국회의원 국감 현장

[구미시정뉴스] 구미시 동네방네 깜짝 놀이터 성황리 ...

[구미시정뉴스] 구미시, 구미IC 쉼터 주차장 확장 조성

[문화축제소식] 10월 축제의 계절

[경북도정뉴스] 지금은 지방 시대, 영호남 문화로 봉친...

[문화축제소식] 「2022 청춘, 금오천 거리예술축제 개최

Hot 포토이슈

1 / 2



최우수상_몽골_어딘가에서_러시아_이르쿠츠크주_슈시나_예바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에
게 운동화 선물



이철우 도지사 과수화상병 현장 방
문



경상북도, 독도수호 관계기관 업무
협약 체결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희석/기자 (gbinews9472@hanmail.net)

♥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기사후원하기 >](#)

[구독신청하기 >](#)



iNEWS 경북도정뉴스 관련기사

경북도친환경농업과,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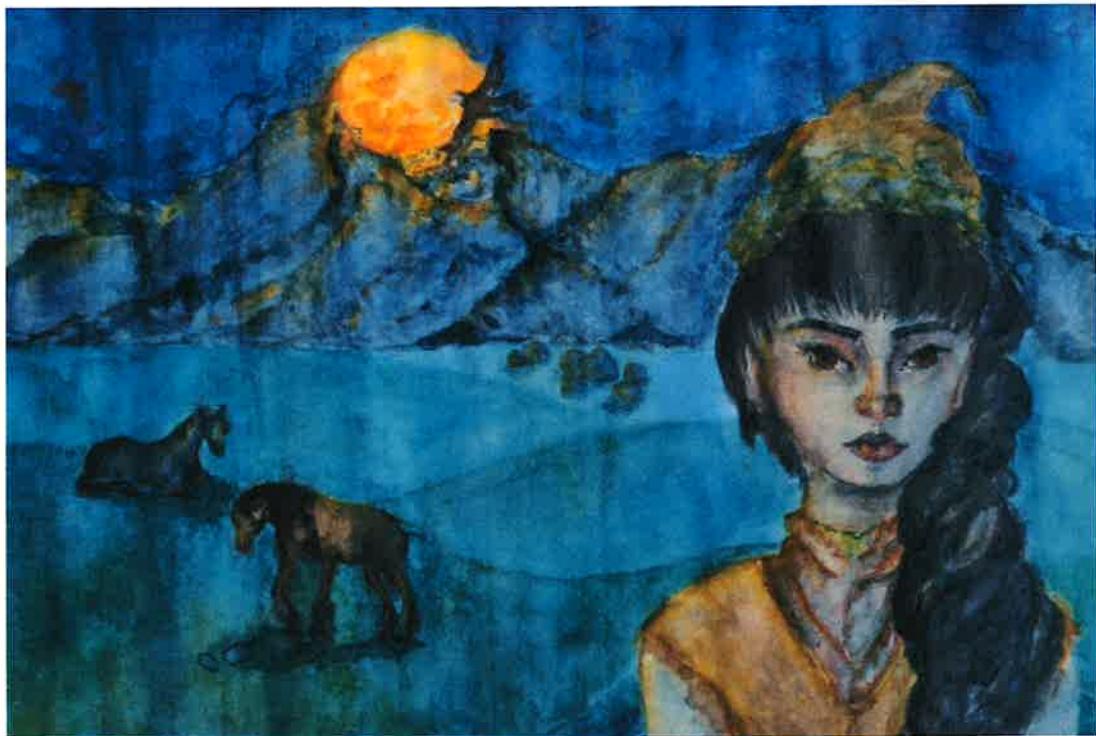
“독도를 휘날리며~”경북도 독도깃발 공모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

기사입력시간 : 2022/10/17 [14:07:00]

김연실 기자 kspa@kspnews.com



▲ 최우수상 몽골 어딘가에서_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슈시나 예바

[케이에스피뉴스=김연실 기자 kspa@kspnews.com] 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

박마틴 기자 newpoint112@gmail.com

등록 2022.10.17 14:07:49



▲ 최우수상 몽골 어딘가에서_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슈시나 예바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 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 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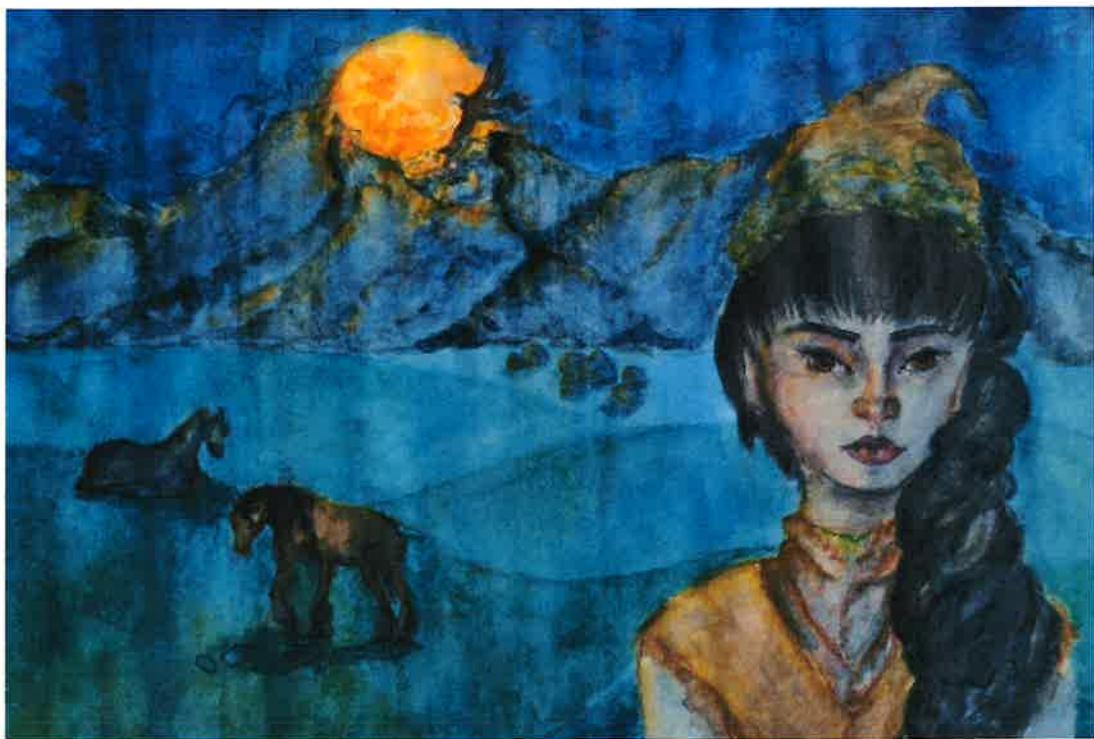
이용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인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吳 서덕수 기자 | ☺ 승인 2022.10.17 15:57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



최우수상 몽골 어딘가에서_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슈시나 예바

[경남에나뉴스 서덕수 기자] 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 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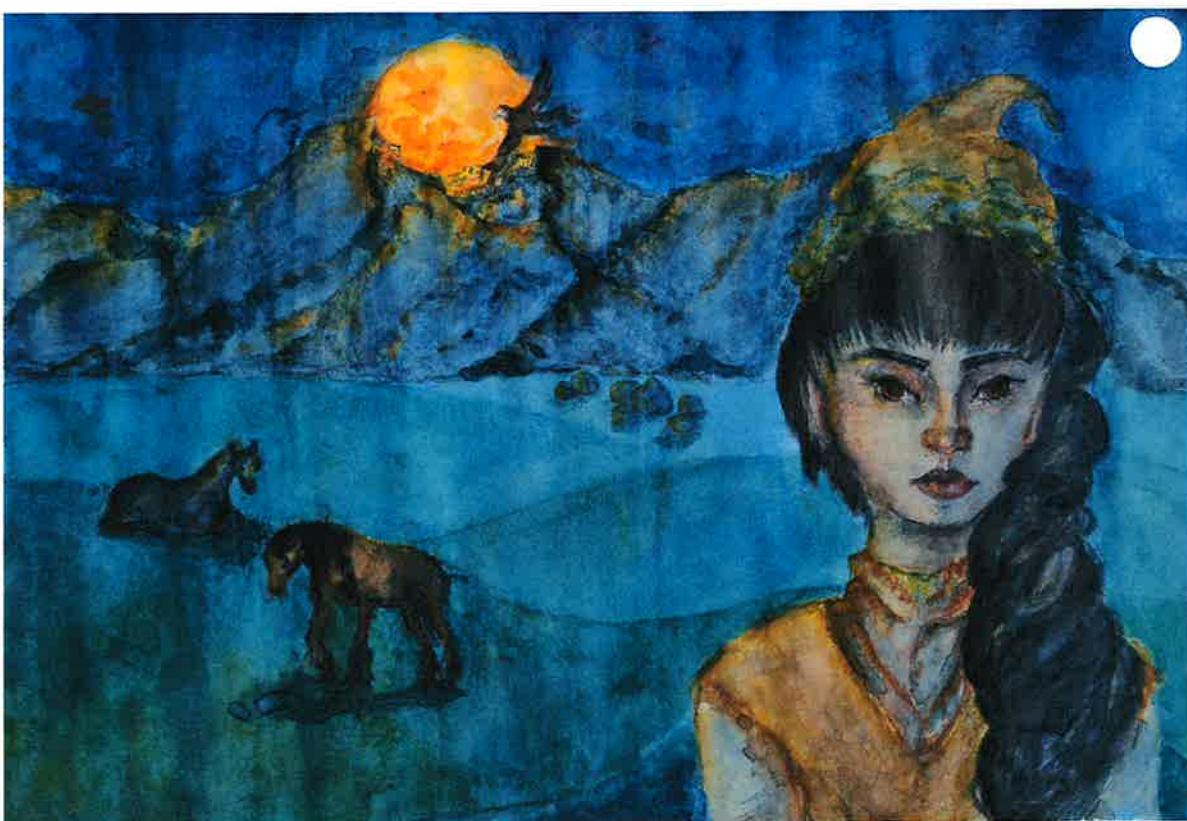


서덕수 기자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전국 입력 2022-10-17 20:20:00 김정희 기자 0개

28일까지 작품 45여점 경북도청 동락관 내 전시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항'살면 임플란트 79만
원 혜택 받는다.

TV출연 주식고수 이런 집
에 살다니..사람들 경악!

TV출연 주식천재 실제주인
공 근황 알아보니...

READ AND EARN!

읽고 공유하면
NEWS 토큰 보상이

로그인한 학교가

A screenshot of a mobile application interface. At the top, it says "READ AND EARN!". Below that, there's a banner with the text "읽고 공유하면 NEWS 토큰 보상이" and "로그인한 학교가". The main part of the screen shows a news article with a blue header bar containing various buttons and links. A message at the bottom right of the screen says "10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10News has been cred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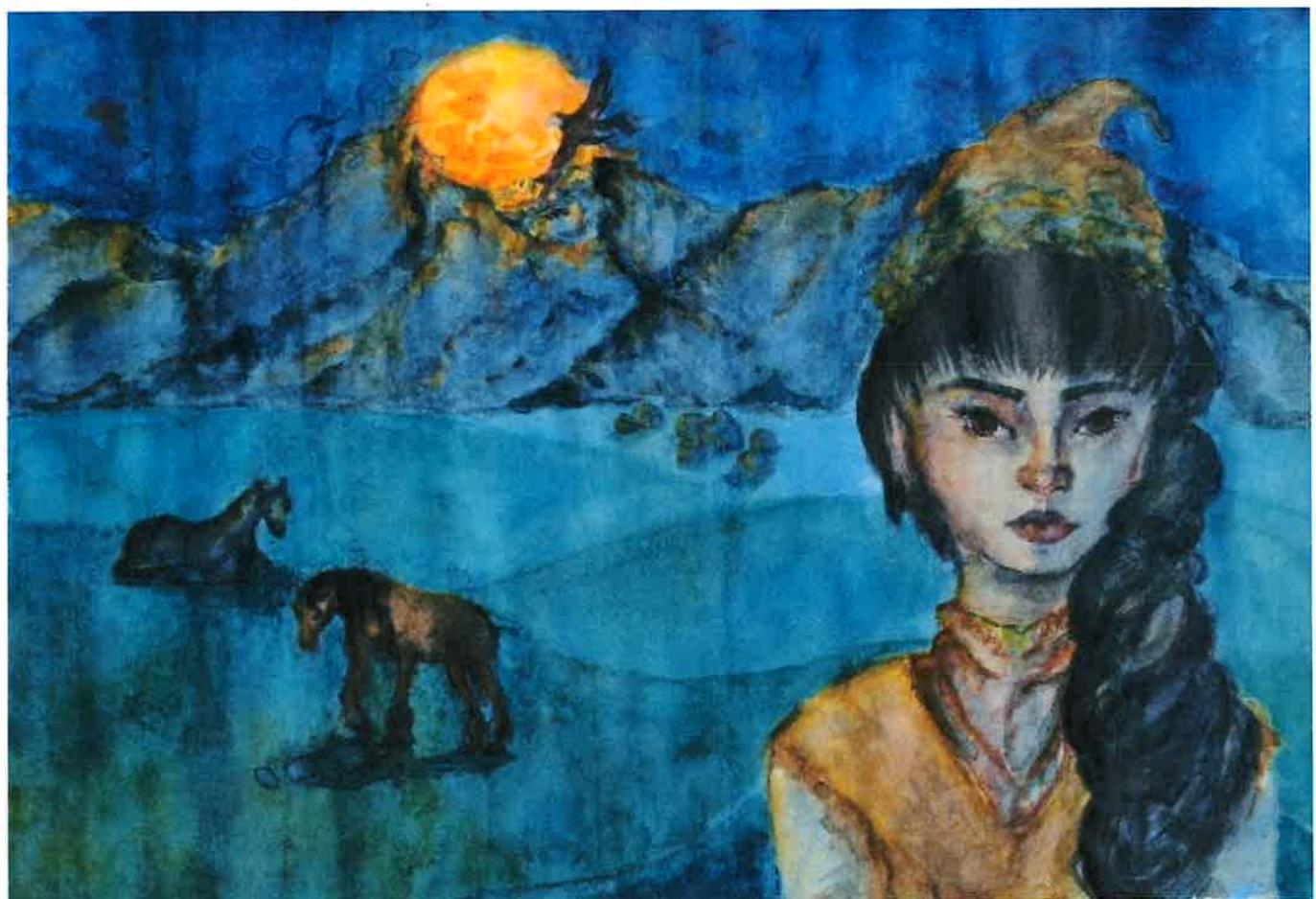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

- 28일까지 작품 45여점 경북도청 동락관 내 전시 -

장선희 기자 shj8769@hamail.net

등록 2022.10.17 14:22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 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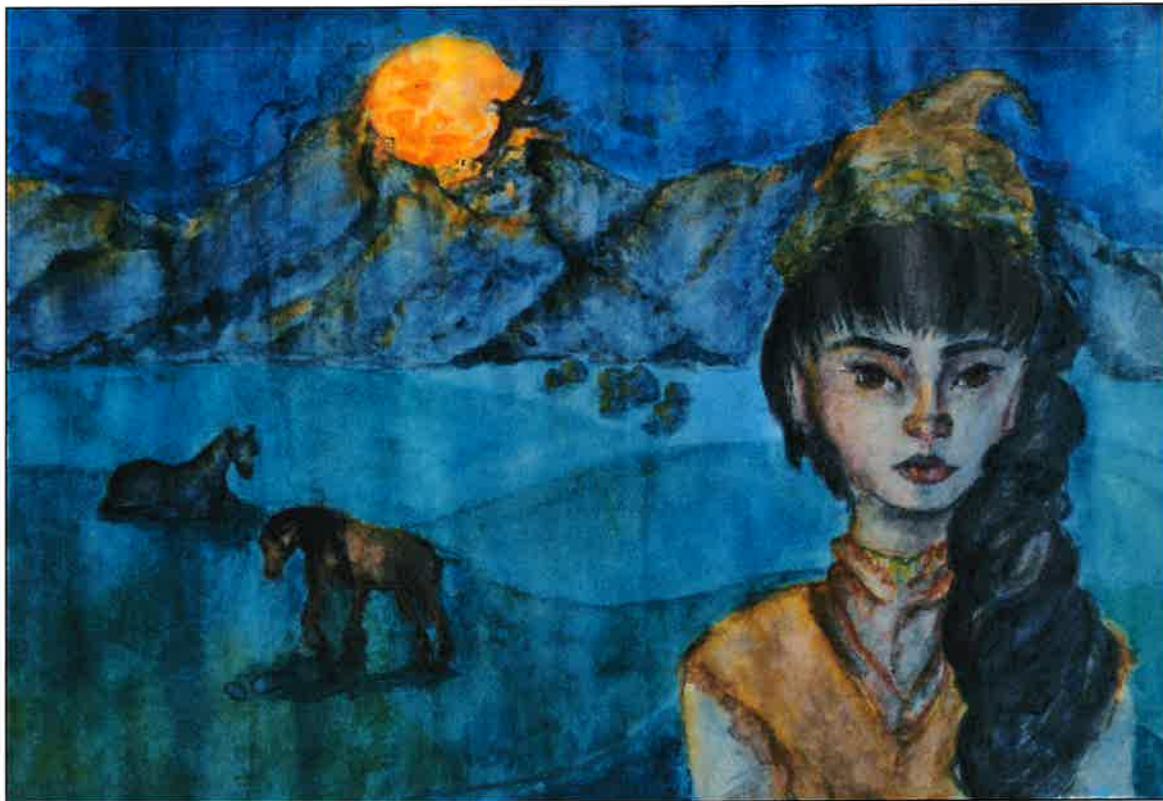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용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 - - 28일까지 작품 45여점 경북도청 동락관 내 전시 -

2022년 10월 17일 [cbn뉴스]



↑↑ 2021_최우수상_몽골_어딘가에서_러시아_이르쿠츠크주_슈시나_예바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 신문명 중앙뉴스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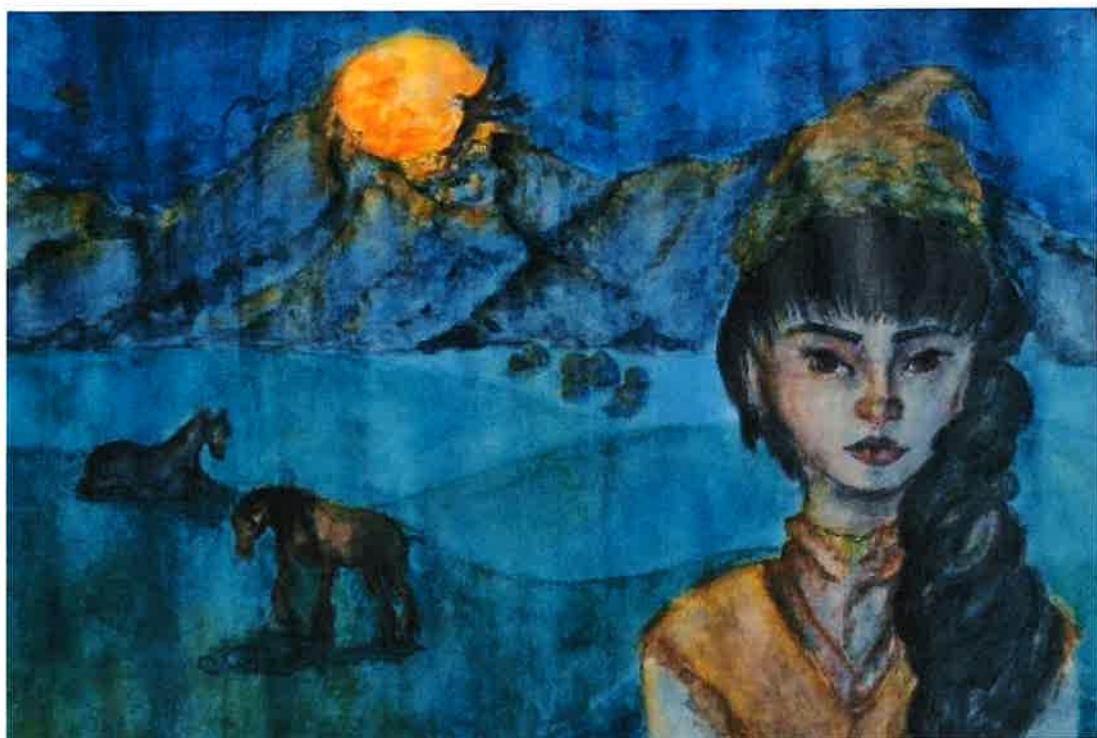
▣ 등록일 22-10-17 14:07

▣ 기사주소 http://www.baronews.net/news_view.jsp?ncd=381355

▣ 기자명 우제현

경상북도, 동북아 5개국 문화 그림으로 보여준다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



[중앙뉴스라인, 우제현기자] 경상북도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응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중앙뉴스라인 .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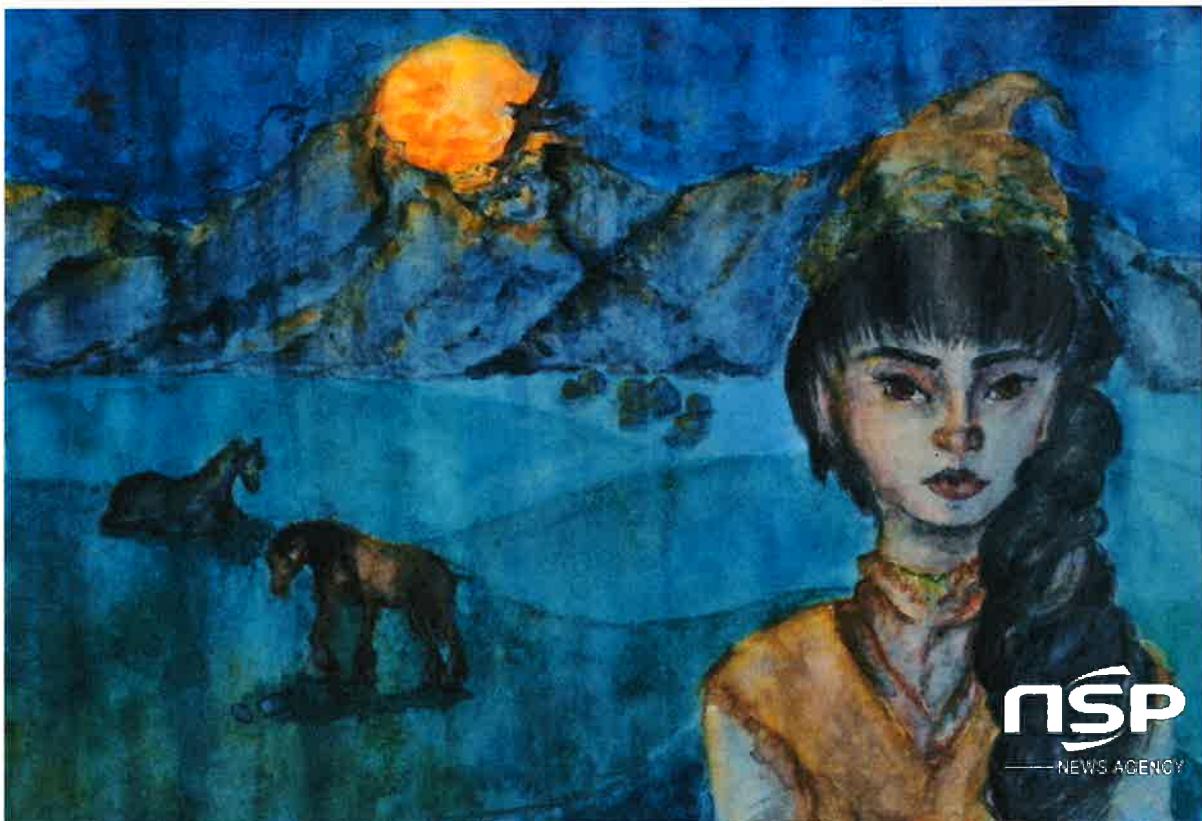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

2022-10-17 15:47, 조인호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경북도 #이철우도지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그림포스터공모전

오는 28일까지 작품 45여 점 경북도청 동락관 내 전시



NSP
NEWS AGENCY

경상북도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최우수상작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일간 도청 동락관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사무총장 김옥채)의 후원으로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45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들은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표현돼 있다.

한편, NEAR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1996년 창설한 독립적 지방협력기구로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창립멤버로 가입,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초대 의장 단체 및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활동하는 등 동북아 지자체 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용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시 간 문화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동북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